



들꽃편지 649

2023.2.19. 우수
<https://cyw.pe.kr>

침묵이 두려운 이유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등산을 하면서 종종...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 무언가를 끼고 있거나, 음악을 크게 켜놓고 산을 오르고 내립니다. 산에 왔으니 산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세속의 소리를 끊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온통 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영혼이 쉬을 얻을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소리로 가득 채우는 이유는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침묵 가운데에서 자신과 정면으로 직면하기가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두려움을 ‘심심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조용하면 심심하다고 합니다. 소음은 우리의 주의력을 빼앗습니다. 소음에 주의력을 빼앗기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시간(새벽기도, 철야기도, 각종 기도시간)에도 찬송가 반주 음악을 틀어서 소리를 내줍니다. 만약 기도 시간에 아무런 배경 음악이 없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도만 해야 한다면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안토니 볼룸(Anthony Bloom)은 “왜 사람들이 침묵을 두려워 하는가? 마음속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꽉 채워진 내면이라면 안에서 흘러나오는 양식으로 사는 데,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밖의 자극이 없으면 갑자기 허전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의 집에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가물거리는 이미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도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침묵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자신의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들롱날 것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올 것이 있다면 굳이 밖의 소리로 채울 필요가 없겠지요.

♥조용히 침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편한 최용우 올립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길을
간다



同舟共濟

동주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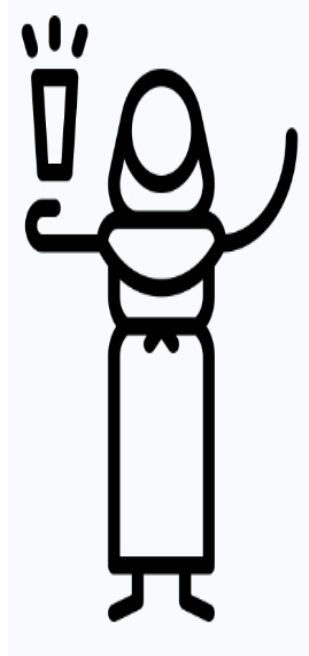
꿈을 접으며

성자聖者가 되고 싶었다.
길이 저만큼 보였고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용기가
모자랐던지, 아니면
발목을 잡는 힘이 만만찮았던지
걸음은 날마다 비틀거렸고
길은 갈수록 멀어만 갔다.

이제 반백半白이 되어
성자되는 꿈을 차분히 접어두고
아아, 나는 한 마리 순한
짐승이 되고 싶을 뿐이다.
성자의 길도 버리고
의인의 길도 버리고
그냥 착한 아무개로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다.

언제고 이 가난한 꿈마저
고요히 접어
맑은 한 줄기 바람처럼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40 규정 속도를 어겼음

새벽에 차를 끌고 일터로 가다 보면 썩썩 달리게 됩니다. 이른 새벽이라 다른 차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며 가고 있을 때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애야, 이 도로는 80km야”

“알고 있어요, 주님.”

“애야, 여긴 60야”

“알고 있다니까요.”

“애야, 여긴 스쿨존야.”

“.....”

경비로 일하는 아파트에 도착하였을 때에야 제한 규정 속도를 무시하고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살짝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남이 보던말던 경비실 안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님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두 번이 아닌 수십 아니 수백만 건이 넘는 죄를 지었군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난 목회할 때 삶이 떠올라 왔습니다.

모든 것은 빨리빨리였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자.”

“빨리 찬양하자. 1절만 하고 끝내.”

“빨리 기도해 1분만 간단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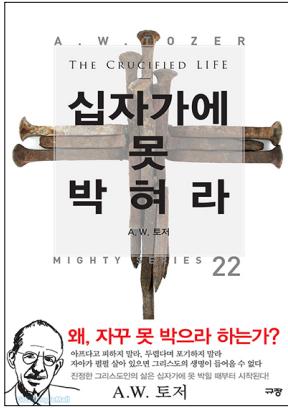
“주님, 지난날 목회할 때 하나님의 규정 속도가 있음에도 지키지 못하고 어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저, 괜찮은 것 같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라



토저 마이티 시리즈 22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336쪽 16,000원 규장 2015

왜, 자꾸 못 박으라 하는가?
아프다고 피하지 말라,
두렵다며 포기하지 말라
자아가 펴져 살아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된다!

1. 포기할 수 없는 주제,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완전한 겸손과 순종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삶이다. 이것은 주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희생제사이다. 또한 성경으로 증명되는 삶이다. 성경에 의해 증명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지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삶이다. 그분을 더욱 닮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열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여행이다.

2. 예수님은 내게 누구인가

오늘날 기독교가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더 깊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으로 들어가라고 권하는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럴 용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관계를 희생시켜서라도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인가? 육신이 되어 사람들 중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속량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3. 십자가 이후에 오는 부활

여행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추호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는 여행의 도착지에서 그리스도와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게 될 것이다. 어느 여행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여정에도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이다. 거기서 만일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 여행이 성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초대교회의 외침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특별한 것이다. 기독교는 특정한 나라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창에 찢려 상처 난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종교이며,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새로운 종족이다. 교회는 지구상의 인류 위에 뛰어난 새로운 백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에 세상과 달라야 한다. 우리는 저 위에 속한 사람처럼 말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늘에 속한 티가 난다”라고 말하게 해야 한다.

4. 영혼의 외로움을 피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은혜의 길밖에 없다. 생각을 통해 그분에게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인간의 생각은 그분의 수준까지 오를 수 없으며, 사실 그분 근처에도 갈 수 없다. 하지만 그분을 향한 굶주림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외로운 작업이다. 친구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체험해줄 수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이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 홀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은 만세반석 위에 굳건히 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요 진리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어라. 주님은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원하는 만큼 성령충만 해진다.

5. 영적 실패자로 마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범 죄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건 이후 자신의 구원에 대해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신령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다. 바울에 의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생명을 얻었지만 해가 거듭되어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땀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 광야에서 떠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분의 보호와 공급을 받았지만 실패자였다. 그들은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 이들은 영적 실패자로 살다가 영적 실패자로 죽는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을 간직한 채 그곳에 이르기 원하는가? 즉, 목적 없이 떠돌고 방황하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즐거움의 기름'(시45:7, 히1:9)을 부어 주시는 곳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더 복된 장소이다. 그곳은 바로 보혈로 산 속죄소이다. 속죄소 옆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자기희생적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6. 오늘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단지 말하는 것에 만족한다. 경배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도 만족한다. 하지만 그분은 형식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분은 진정한 경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과 사랑과 경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 불과 같은 우리의 영적 본질을 원하신다. 내적 불이 꺼지면 외형주의가 발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사람들은 크게 자극을 받고 외형주의를 떨쳐버린다. 예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껍데기뿐인 형식을 극복한다. 진짜를 흉내 낸 인위적인 대형교회보다 살아 있는 작은 교회가 더 낫다. 소박하지만 살아 있는 경건이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공허한 의식보다 낫다. 우리는 성경을 만나야 한다. 우리 신앙의 설계도 '성경'이라는 청사진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성경은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이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은 명예와 부와 높은 지위를 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7.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진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이켜야 가능하다. 미심적은 경건은 용납되지 않는다. 예수님이라면 행하지 않으셨을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내 마음은 세상을 버렸지만 내 몸까지 세상을 버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끊어버렸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큰 분노를 느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다.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버리지 않고 따를 수 없다.

8. 신뢰는 선택이다

신뢰란?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자신에 대한 존경과 확신’이다. 자기 신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로막는 마지막 방해물이다. 이 방해물에 막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 자기 신뢰가 그토록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 속한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았다. 우리는 자신이 좋은 습관과 미덕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을 깨우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방법으로 자기 신뢰를 처리하신다. 첫 번째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룩한 감동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자기 신뢰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둘째, 육신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육신적 고통은 모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효과적 방법중 하나이다. 셋째, 극단적인 시련과 시험이다. 성경의 예수님은 성령충만 후에 광야로 가서서 엄중한 시험을 받으셨다. 넷째,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성도의 발자취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다. 영적 성장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시간표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분을 의지할수록 나의 자기 신뢰는 줄어든다.

9.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따르라는 부름이다. 원수 마귀에게는 온갖 악한 것을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의 손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해도 끼칠 수 없다. 우리가 늘 던져야 할 질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본 휘퍼는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라는 책에서 “우리 교회의 영원한 원수는 ‘값싼 은혜’이다. 지금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썼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신다. 가장 주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걸모양을 멋있고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고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 첫째, 안전을 포기하라. 둘째, 편의성의 유혹을 뿌리치라. 셋째, 재미를 희생하라. 넷째, 인기를 내려 놓으라. 다섯째, 세상적 성공을 버리라.

10.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베일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상한 것이 자꾸 끼어들었다. 그 이상한 것을 ‘모호함의 베일’이라고 부른다. 이 베일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베일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베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교만과 완고함이다. 완고함은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다. 교만이나 완고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고집이다. 교회 안에서의 고집은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집은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고 자기의 뜻을 주장한다. 또한 우리를 가장 잘 속이는 것은 종교적 야심이다. 종교적 야심은 대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다. 또한 소유권 주장이다. 내가 어떤 것을 완전히 포기하여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분과 나 사이를 가로막게 된다.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단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의 광채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의 아버지는 불신앙이다. 그리고 돈이다. 신자들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우정이다. 우정은 찢어버리기 힘든 베일이며, 우리에게 아주 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 베일이다. 또한 사회적 지위이다. 내려놓기에는 너무 힘든 것이다. 베일을 찢어버려라. 겉으로는 아무런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위험스런 것이 될 수 있다.

11.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독창성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에 대해 배워야 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야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자.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착각이다. 실제로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다는 착각이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행동이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착각이다. 한편으로는 성령충만을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인도를 거부하고 우리 뜻대로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넷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이다. 다섯째, 종교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충성스런 종'으로 소문나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이런 세속성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십자가이다.

12.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성령 충만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복돋워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며 경탄과 경배에 빠지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대신 물질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시는 분보다 우리가 받는 것, 즉 선물에 더 관심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성령충만, 경건한 삶, 거룩한 사랑 그리고 온갖 선한 것을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만 갖게 된다면 '가시 돋친 장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흔히 범하는 잘못은 하나님을 상자 안에 넣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분'으로 느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학문의 차원을 넘어 놀라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

-정리: 이재익 목사(일본 니가타교회)

민들레

꽃 좋아하는 아내가 어디서 캐 왔는지
민들레를 발독에 쪽 심어 놓은 거야.
지나가다가 밭에 걸려 하나가 뽑혔지
아내가 보면 잔소리를 할까 봐
발로 룡 킅을 해서
물 흘러가는 깨골창에 차 넣어 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오늘 우연히 보았어
그 뒤집힌 민들레에서
꽃대궁 몇 개가 쭈욱 올라와
노란 꽃이 피었더라구
나 어떻게 해?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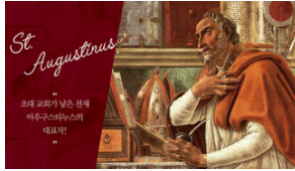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덧글]

히영숙 /민들레의 생명력을 재미있는 서술로 풀어주셨군요.
아내에게 옮겨 심었다고 말씀하셔요

경alswd /ㅎㅎㅎ 강 계셔요. 아무 말 안 하면 모를 거예요.
민들레가 아꼈겠네요 ~ㅋㅋ

정령들과 천사들의 비교



235. 그리스도 신자의 혼을 움직이는 감정은 덕을 실현한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인간 정신을 다스리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정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모든 감정은 정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이끌며 억누른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윤리에서는 경건한 정신이 화를 내는지 또는 참는지 묻는 게 아니라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두려워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236. 정령들을 휘두르는 권력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있는 정령(악령)들이 정념에 흔들린다는 플라톤 학파의 말은 무슨 뜻인가? 정령의 정신이 악덕을 따르고 그것에 지배를 받아 이성 지닌 것을 속이려 심하게 유혹하고 해를 주는 욕망이 더욱 강하게 정신을 지배한다면, 정령들의 어떤 부분이 신들에게 호감을 주며 인간들을 바른 삶으로 오롯이 이끌 지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237. 플라톤학파 사람들은 시인들이 지은 ‘신들을 모함하는 시’

는 정령을 다뤄야 한다고 말한다. 아풀레이우스는 시인들이 신들을 허구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정령들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정령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시인들의 허구가 진실과 아주 멀지는 않다고 말한다.

238. 인간은 정령의 중개로 신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인간과 신들 사이에서 인간이 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계자는 어떤 존재일까? 생명을 가진 동물을 혼과 육체로 이루어진다. 혼이 육체보다 뛰어나다. 결합 많고 약할지라도, 혼은 건강한 육체보다 앞선다. 왜냐하면 혼은 그 본성이 육체보다 뛰어나며 악덕이라는 오점을 가졌어도 육체보다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러운 황금이 깨끗한 은이나 납보다 더 가치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사악한 정령들은 마치 신과 육체를 이어주는 것과 같다. -계속

회개



1. 반성과 회개

오늘 아침에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 기억 속 모습은 그냥 고등학생입니다. 무엇 때문이었던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나와 그 친구에게 ‘반성문’을 써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금방 썼는데 그 친구는 밤새 끙끙대면서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가 아침에 “용우야, 나는 그냥 몸으로 때워야겠어.” 그래서 제가 5분만에 반성문을 후다닥 대신 써 주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반성(反省, reflection)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거나(내성법) 행동을 돌아보아 인식하는 감정적 기술입니다. 주로 불교에서 많이 하는 수행법 가운데 한가지입니다.

■회개(悔改)는 죄의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수행법...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싫어해서 사라져가는 아련한 단어입니다.

반성과 회개의 차이점은, 반성은 자기 양심에 가책을 느껴 뉘우치는 것으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예수를 판 은전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취임을 받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렬하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므로 ‘스스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자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회개한다’고 해도 그것은 ‘반성’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흰옷을 빠는 것’은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7402)

2. 찢어진 마음

이슬람, 유대교, 영지주의, 기독교를 짬뽕하고 불교와 힌두교의 수행방식까지 이것저것 섞어서 복잡한 교리체계를 만든 ‘마니교’라 하는 종교가 과거에 이란에서 생겨났었습니다. 참고로 마니아(Mania)란 말이 마니교에서 유래할 만큼 마니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극도로 이원론적이며 현세에 부정적이며 일방적인 내세 지향적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만연한 ‘OO파 계열 가짜 기독교’가 죄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마니교’의 선악관과 비슷합니다. 마니교에서는 인간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어 이 둘이 서로 막 싸우는데 악이 선을 이김으로써 인간이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에 의해서 죄를 짓기에 나도 악의 피해자라는 인식입니다. 어저스틴이 젊었을 때 마니교에 빠졌는데 이 문제에 의문을 품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아니다’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칼빈은 “인간은 마귀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 안에 악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습관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그 죄는 내 안에서 습관이 되어 버립니다. 술을 계속 마시면 알콜 중독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부추겨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평생 똑같은 회개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나로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을 ‘찢어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7403)

3. 하나님의 얼굴

다니엘기도회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찬양 인도자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이다.”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33:1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요14:8) 구약에서는 모세가 신약에서는 빌립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출33:20)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고전13:12)라고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目)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머리털 하나도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세포 하나처럼 너무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세포 안에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 한번 보여줘 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무식하면서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줘도 보지못할 뿐 아니라 만약 본다면 그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은 ‘나를 죽여줘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7405)

4. 꺾어진 마음

어릴 적 딸 아이를 재울 때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나는군요.

“좋은이 자니?”

“네 엄마. 지금 내 눈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자고 싶는데 안 자세요.” 눈을 감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던 딸의 대답에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야겠다고 ‘나는 자랑스러운 십자가 앞에 굳게 다짐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반복된 죄를 저지르면서 “난 참 대책이 없는 놈이군.” 성결한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양심의 가책을 빠집니다. 죄 앞에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불러 보지만 어느새 죄를 반복하고 있는 이중적인 마음을 ‘찢어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존 오웬은 ‘불신자는 죄를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짓지만, 신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듭난 새 본성’(롬7:21-25)입니다. 새 본성이 나를 장악하여 힘이 있으면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지만, 새 본성이 약해지면 어느새 옛 본성이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쳐듭니다.

찢어진 마음을 꿰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 순간 찬란한 진리의 빛, 열렬한 기도, 충만한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고 그런 의무적인 신앙생활이나, 신자의 영적 감각을 되살리지 못하는 형

식적인 예배로는 찢어진 마음을 꿰매 수는 없겠죠? (7406)

5. 예수님의 얼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요14:8)라고 하자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여달라고 하니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보고봤어>라는 가수 ‘신화’의 노래를 불러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요14:10)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왜 자꾸 밖에서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태, 형상을 찾습니까? 우상숭배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는 것’(롬1:23)입니다. 거대한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신’ 또는 ‘조물주’라며 이상한 형상을 얹어놓는 것은 미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아닙니다. 당대의 지성인을 자처하며 권력자들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당이 왜 점점 거대해져 가고 그 모양이 이상(?)해져 갑니까? 마귀는 예수님게도 ‘천하만국’의 화려함을 보여 주면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여줘 봐”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거대한 형상’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7407)

6. 성령님의 얼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요14:8)라는 말은 절박한 울부짖음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고정된 신앙개념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반복되는 형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으니 그런 것 말고 진짜 ‘하나님 자신을 내놓아 보아라!’ 하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가 되어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14:10)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in)’에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규하는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예수 속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셔서 빌립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저 성전(?)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 계신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속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과 지각을 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옵소서! (7408)

7. 믿음은 중요하다

중세 가톨릭은 행위 중심, 공로 중심, 전례(전통)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과도한(?) 행위와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뇌하였습니다. 그때 개혁자들이 일어나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롬3:27-28)구원을 얻는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롬3:24)구원을 얻는다. 전례(전통)이 아니라 말씀(성경)으로 의인이라 인정을 받으며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다.(요1:12)고 주장하였습니다.

가톨릭이 망각한 '구원'을 재발견한 획기적인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변함없이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치고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며,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구원을 완성해야(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완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칭의(稱義 justification)와 성화(聖化 sanctification)로 표현했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는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와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심하게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믿음'에 취해서 '성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화는 더 중요합니다. (7409)

8.성화는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독교 130년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여 사용된 다섯 가지 단어는 ‘믿음, 은혜, 부흥, 성전건축,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본 회퍼가 말한 대로 복음은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한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다는 인상을 세상에 심어 주었고 교육수준과 소득향상으로 점점 성숙해져가는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사회에서 기독교는 역사의식이나 윤리의식이 시민 평균에도 못 미치는 미성숙한 모습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그 수명이 다한 ‘공산주의’의 악령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색깔론 타령을 하면서 광화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서글픕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타계적 신앙, 도덕성보다는 성장을 앞세워 기업처럼 마케팅에 올인하는 교회들,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욕망충족에 빠진 기복신앙, 천박한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무조건 부자부터 되자는 이기적인 축복신앙에 빠진 기독교,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진리를 추구하며, 깨달은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구도자들은 차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낮을 들 수가 없어서 다 재야에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7409) ©최용우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햇별같은이야기>는 1995.8.12일부터 매일 아침 원고지 5매 1000자 정도의 짧은 칼럼을 28년 동안 매일 이-메일로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침편지입니다. <햇별같은이야기>는 10000번 발행을 목표로 2023년 2월 현재 7402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50쪽 내외의 책 22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로 검색)



밥그릇 국그릇 (사진:최용우)

밥그릇

하루 세 번 내가 가장 집중하는 중요한 작업은 밥그릇, 국그릇에 숟가락, 젓가락이 들락날락하며 음식을 내 입속에 집어넣는 '식사'라는 일이다. 그런데 그동안 국그릇 밥그릇을 하도 많이 깨먹어서 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아내가 "새해엔 예쁜 그릇 세트로 맞추어서 우리 식구도 좀 우아하게 <식사를 합시다>"해서 아이들 것까지 밥그릇, 국그릇 네세트를 구입했다. '모던하우스'에 가면 모던한 그릇이 있을까 싶었는데, 맘에 드는 그릇이 없었다. 그래서 수입 그릇을 파는 '메종'에 갔는데 너무 알록달록 화려한 그릇들만 있어서 다시 '이-마트 자주 (JAJU)'에 가서 드디어 90%쯤 맘에든 그릇을 발견했다.

아내는 각진 그릇, 나는 둥근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둥근 그릇을 선택했다.

친근한 고양이

어릴적부터 동네 개들이란 개들은 죄다 몰고 다니던 작은딸이 지금은 동네 고양이들을 죄다 몰고 다닌다.

시골에서는 개를 풀어 키우기에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은데, 도시에서는 끈에 묶어서 주인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개나 만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개 대신 이제는 동네 고양이들과 친해져서 고양이들을 죄다 쓰다듬고 다닌다. 유독 개나 고양이가 따르는 사람이 있다. 음... 내 생각에는 개나 고양이도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쁜 사람은 좋아하고 미운 사람은....흥!

개나 고양이가 나를 보는 눈빛은 밝은이를 보는 눈빛하고 사뭇 다르다. 배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 개나 고양이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 내가 맛있게 생긴 사람으로 보이는지 침을 흘린다.

나도 너그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조심해.



아바타2

방학을 맞이하여 엄마의 사랑~ 바리바리 차에 싣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서울에 사는 딸들 집에 올라갔다. “어디쯤 오세요?” 하고 카톡이 오는 것을 보니 아마도 엄마 온다고 부랴부랴 집안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비상이 걸렸나 보다.^^

거의 3시간 걸려 12시 30분에 도착!

점심을 먹고 오후에 ‘아바타2’ 영화를 보기로 했다. 총신대역 메가박스 예매. 오랜만에 가족들이 쭈루루루 앉아서 ‘가족영화 보기’를 했다. 상영시간이 3시간이나 되어 중간에 오줌 마려울까 봐 음료수도 안 먹고 참았다.

3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몰입해서 잘 봤다. 1편이 워낙 강렬한 인상을 주어서 그런지 2편은 대충 예상이 되는 스토리와 세계관이었다. 그것을 더 화려해진 그래픽과 특수효과로 채운 것 같았다.

아바타2,3,4,5,편을 동시에 찍었다고 한다.



핑크퐁

세종수목원 마당에 우리 동네에서도 보일 만큼 커다란 인형이 앉아 있다. 높이 20미터의 '핑크퐁'이라고 한다. 수목원에서 핑크퐁 특별전을 한다.

가족 카톡방에 '핑크퐁' 사진을 찍어 올리니 아무도 모른다.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유튜브 조회수 120억뷰로 1위인 '아기 상어 가족'의 한 종류이다. 세상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핑크퐁 캐릭터를 우리 식구들이 모른다니...

전 세계 아기들이 아기상어를 재생시키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든다는 '아기 상어 가족' 아기들에게 유명한 캐릭터여서 잘 몰랐구나.

우리 어른들에겐 '로봇태권브이' 우리 아이들에겐 '텔레토비'같은 존재가 요즘 아기에겐 '핑크퐁'인 셈이다.

그런데 재는 고양이인가? '사막여우 수컷'이다.



거기까지

금남소방서 길 건너편 밤나무집 마당에 개가 여러 마리 묶여 있다. 그 앞을 지나 산책 운동을 하면서 매일 만나는 개들이다. 그런데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으르렁거리며 달려든다. 덩치가 좀 있는 개라서 어느 때는 무섭다.

하지만 개는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가올 수 있는 거리는 딱 거기까지 정해져 있다. 어느 날은 하도 짖어서 바로 앞까지 가 메롱메롱 약을 올리며 지나가기도 함. 크~~!

그런데 짖을 때 보면 꼬리를 사랑살랑 흔든다. 그런 몸 언어는 '같이 놀고 싶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루종일 묶여 지내느라 심심한가 보다. 그래도 야, 지금 내가 너랑 놀 군번이냐? 그런데 놀아주고 싶어도 개가 너무 커서 엄두가 안 난다.

너 지금 가까이 가면 꼭 물려고 순진한 척하는 거지?



장보기

아내와 함께 이마트로 장을 보러 갔다. 설에 만들 음식 이름을 적더니 필요한 재료가 많다며 나를 특별히 짐꾼으로 데려간 것이다.

“넵. 마님.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저것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랐다. 안 오른 것이 없을 정도이다. 나는 이것 저것 비교해 보며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아 여기저기 비호처럼 날아다니는 아내를 열심히 쫓아다녔다.

나는 왜 마트에만 오면 힘이 쪽 빠질까?... 어떻게 1시간 정도는 버텨 보겠는데... 카트를 미는 힘이 점점 빠져나간다. 아내는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분주해도 전혀 지치지 않는다.

인형 앞을 지나가는데 곰인형이 두손 두발 다 들고 있다. “야,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다.” 곰 인형과 토크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하나만 더 사고 집에 가자 한다. 왔! 곰이 눈을 똑 떴다.



천장에 붙은 택배

택배를 불이러 우체국에 갔더니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엄청나서 벌써 며칠 전에 접수 마감을 했다며 지금 붙이면 설 지나야 배달된다고 한다. 나도 화물터미널에서 택배 물량 처리를 해 본 경험이 있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우리집에 오는 택배가 자주 2층 웅이네 집으로 간다. 웅이네 집에 젊은이가 셋이나 되어서 날마다 택배가 엄청나게 오니 어찌다 오는 우리 집 택배가 위로 휩쓸려가는 것 같다.

요즘에는 택배를 배달하고 배달했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 그런데 택배가 천정에 붙어있다. “아니, 택배를 천정에 붙여 놓으면 우짱니까? 어떻게 저기에 붙였습니까?”

“그럴리가요. 제가 택배를 어떻게 천정에 붙여요... 아,.. 사진이 뒤집어졌네요.”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90회 전월산(260m) 2022.1.11.

청와대가 이전을 하면 청와대 뒷산이 될 전월산에 올랐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이 아니니 음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양화리 주차장을 들머리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양화리 따뜻한 언덕에 커다란 절이 들어서고 있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 걸으려는 '세종전통문화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절을 짓고 있다.



▲제591회 원수산(251m) 2023.1.18

세종소방서 뒤쪽을 들머리로 해서 성재봉 -오산 -원수산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추운 날씨인데도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기를 축구공처럼 둥그렇게 싸서 가슴에 안고 조심~ 조심~ 조오심~ 올라온 애 기엄마도 있었고, 사업 얘기를 진지하게 하며 내 옆을 썩 지나쳐간 아저씨들도 있었고, 올해 대학 입학할 하는 여학생도(전 화통화를 듣고) 있었고.. 암튼 많았다.



날씨가 흐린 것인지 미세먼지인지 스모그(smog)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야가 뿌옇게 흐려서 어디를 찍어도 사진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은 포기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올해는 가까운 대전, 충남, 세종에 있는 산부터 다시 오르면서 슬슬 시동을 걸어보아야겠다.

▲제592회 비학산273 (일출봉252m) 2023.1.3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 우수-꽃샘잎샘에 안녕하십니까?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24절기 가운데 둘째 우수(雨水)입니다. 우수란 말 그대로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인데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지만, 저 멀리 산모퉁이에는 마파람(남풍南風)이 향긋한 봄내음을 안고 달려옵니다.

예부터 우수 때 나누는 인사에 “꽃샘잎샘에 집안이 두루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있으며, “꽃샘잎샘 추위에 반늪은이(설늪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꽃샘추위를 한자 말로는 꽃 피는 것을 샘하여 아양을 떠다는 뜻을 담은 말로 화투연(花妬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무렵에 장을 담그면 40일 뒤인 4월 청명과 곡우 사이에 장이 발효하기 좋은 날씨가 되어 장이 맛있게 잘 익습니다. ‘쌀 있고, 장 있으면, 들에서 푸성귀 뜯어 먹고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또 이때는 신맛이 들기 시작하는 김치로 김치만두, 김치볶음밥, 김치전을 부쳐 먹기도 하며, 겨울을 이겨내며 올라오는 냉이, 달래, 봄동나물을 무쳐 먹는 봄맛이 계절입니다.



② 표지사진 이야기

아내와 함께 운동산책을 하면서 강가에 피어난 버들강아지를 꺾어왔습니다. 용수천변에는 버들강아지가 너무 많아 해마다 사람을 고용해서 베어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꺾어와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어떻게 버들피리를 만들어 불 생각을 했을까?” 하고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버들피리를 ‘해때기’라고 불렀었습니다.

③ 도서출판 소식

- 신간 <들꽃편지9권 분꽃호> 510쪽 21100원 -2월8일 출간
- 66권 <들꽃편지8권 영경귀꽃호> 510쪽 21100원 -1월11일 출간
- 65권 <들꽃편지7권 민들레호> 510쪽 21100원 -12월14일 출간
- 64권 <들꽃편지6권 금계국꽃호> 506쪽 21000원 -11월15일 발행
- 63권 <들꽃편지5권 참꽃> 528쪽 21900원 -10월19일 발행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60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3.1월 재정결산

2023년 1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찬찬 김광현 김상식 김정옥 김준경 김중곤 남상욱 무명 박근식 박기순
박미경 박승현 박신혜 신종철 오창근 옥치오 유병일 유종예 이경남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경애 정호숙 정호숙 조운학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들꽃교회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장사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38분이 2,400,000원 (아-메일 발송 특별후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격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2.17.일까지 7402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67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새로 나온 책

제9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9권 분꽃호
최용우 편집 510쪽 21,1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 선교지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 정도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들꽃편지 제9권〉은 2004.10월 제344호부터 2006.1월 제407호까지 1년 2개월 동안 발행한 40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어부동 마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섬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돕는 환대 사역을 하다가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5년 만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산림박물관 옆에 있는 〈산골마을〉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환대 사역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향토로 지어진 120평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개인 방문이나 단체로 수련회를 오는 팀들을 섬겼습니다. 바로 옆에 수목원이 있어서 계절마다 온갖 종류의 꽃 사진을 찍었고 수목원 뒷산 능선을 따라 도는 산행코스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만들어 전국에 퍼졌던 〈들꽃편지〉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일출봉에 햇별이 짱하오

세종시 금남면 용포곶티마을 뒷산 비학산 일출봉을 오를 때마다 한 편씩 시를 썼습니다. 꽃과 벌레와 동물과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나는 얘기들이 정겹고 아름다운 시가 되었습니다.

13,600원 210쪽(컬리)퍼플



일상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쁨'을 가득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시집은 일상에서 찾은 평범하면서도 시시하면서도 가만히 마음을 열어주고 보듬어주는 담백한 시집입니다.

13,400원 210쪽(컬리)퍼플



따뜻한 밥상-아침밥1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맛질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1년 동안 역대상 11장까지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아침밥2

하룻동안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말솥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거르면 몸이 상하듯 말솥 밥상도 거르면 안 됩니다. 밥 드세요 역대상 12장부터 예언서 전체를 1년 동안 묵상

17,300원 398쪽 퍼플



따뜻한 밥상-점심밥1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 - 하루 한쪽 1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단 순히 읽기만 해도 영혼에 양식이 되는 순수 말솥 중심 묵상집입니다. 시편 전체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점심밥2

묵상은 칼대기와 같아서 단 순히 그냥 흘려 보내기만 해도 머리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변화는 머리로 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398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49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